

##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북러 관계에 미칠 영향

### 여 인 곤

통일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

러시아의 동북아정책 목표는 안보를 확보하고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심도 있고 균형된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과의 경제관계 확대 등을 중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러시아는 남북한 통일을 먼 장래의 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 시까지는 남북한이 대화의 증진을 통해 평화적으로 공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남북한 간의 무력충돌이나 북한에서의 돌발사태 발생은 동북아 세력균형을 변화시키고, 이는 러시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는 「2·13 북핵 합의」에서와 같이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지지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의 미해결을 아·태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2002년 10월 야기된 제2차 북핵위기 이후 6자회담 및 한·미·중·일과의 양자회담 등을 통해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2006년 한러 교역은 약 93억 달러(러시아의 수출 25억 달러, 수입 68억 달러)에 달하나, 북러 교역은 약 2억 1,000만 달러(러시아의 수출 1억9,000만 달러, 수입 2,000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의 경제회복 추세에 따라 러시아는 남북한과의 경제관계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 및 이 지역의 아·태경제권 편입을 위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 원유·천연가스과 전력 공급, 국경무역, 수산물 가공 및 어업 등의 분야에서 남북한 및 러시아간 3각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8월 8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계획이 발표되자, 러시아 외무부는 그러한 “남북한 간의 합의를 진심으로 지지 한다”는 성명을 즉각 발표하였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안정·협력을 강화하고, 북핵 해결 및 북미 및 북일 관계정상화 과정에 기여하며, 러시아와 남북한간 대규모 3자 협력프로젝트의 실현을 촉진시키기를 희망하였다.

10월 2~4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 공동번영, 화해·통일 세 분야가 중심으로 협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분야에서는 비핵화, 군사적 신뢰구축 등 한반도 평화정착 실현을 위해 남북한간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을 폭넓게 협의할 것이다. 공동번영 분야에서는 남북경협을 교역과 투자 중심으로 상호 보완적이고 쌍방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

한 협력사업 추진과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화해·통일 분야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의 제도화 수준을 한단계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 공동번영, 화해·통일 세 분야에서 상기와 같은 남북정상간의 논의와 협의는 향후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러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러 관계와 관련, 첫째,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는 경우, 이는 선순환적으로 6자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러시아의 중요한 한반도정책 기조 중 하나인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북한과의 경제관계 발전에 있어 중요한 장애요인인 약 80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대러 채무 중 상당 부분을 탕감해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경협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고 대북 개발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북러간 교역이 증대하고 경제회복 추세에 있는 러시아의 대북 투자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셋째, 남북한간 긴장완화와 경제관계 확대는 러시아가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남북한 및 러시아간 3각 경협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TSR-TKR의 연계운행을 포함한 철도현대화를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13조 루블(약 5,200억 달러)을 투입하는 장기투자 계획을 지난 9월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서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철도 현대화 사업을 포함한 TSR-TKR 연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남북한과 러시아 3국은 지난 해 나진항 공동개발에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사업이 실천되면 향후 우리나라의 유럽 수출품들이 부산에서 나진항까지는 선박을 통해, 그리고 나진항에서 유럽까지는 TSR을 통해 운송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2002년 북핵위기 발발로 무산된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청진까지 송전선을 연결해 전력을 북한에 공급하는 문제도 다시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